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사성명학적 연구

김 병 권*

차 례

- | | |
|----------------------|---------------------|
| I. 서론 | IV. 利他自利의 행위와 사건 구성 |
| II. 蘇大成 성명의 地澤臨卦 上六 | V. 敎思保民의 교화와 주제 형성 |
| III. 大道正士의 인품과 인물 형상 | VI. 결론 |

I. 서론

소대성은 <소대성전>의 주인공이며,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은 소대성의 일대기이다. 대성은 크게 이룬다는 뜻인데, 주인공의 이름을 대성으로 작명한 계기가 <소대성전>에 서술되어 있다.

상셔 만심 화히호여 부닌계 치호왈 이 아히 기골을 보니 범상호 인물
이 안니라 타일의 죠종을 빗닐 거시이 엇지 즐겁지 안니 호리요 호시고
일홈을 디성니라 호고, 즈은 용부라 호다(<소대성전>, 제2장 후면)¹⁾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권우행 교수 소장의 완판 43장본 <소대성전>에서 인용했으며, 띄어쓰기는 팔자가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작품명을 생략하고 그 출처만 밝힌다.

상서는 늦게 얻은 아들의 기골을 보고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 하며, 조종을 빗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판단과 기대가 아들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작명하게 된 계기이다. 따라서 소대성의 성명은 조종을 빗낼 수 있는 기대가 실현되도록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보아진다.²⁾ 여기서 조종을 빗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작명한 소대성이라는 성명이 함축한 내용은 영웅의 일대기로 전개되는 작품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성명은 다른 사람과 구분하도록 하는 개인적인 성격을 드러낸다.³⁾ 특히 작명은 인물 성격 묘사의 가장 간단한 형식이며,⁴⁾ 일정한 역사, 민족, 문화, 사상, 지역, 관습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정한 문화와 심리를 반영 한다.⁵⁾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성명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서 작명하는 관습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이 관습을 성명 학이라고 한다. 사람의 성격 또는 일생을 판단하는 성명학의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게 주장되었다.⁶⁾ 성명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명에 사용한 한자의 획수를 활용하며, 성명학은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數理姓名學과 易象姓名學으로 구분된다.⁷⁾ 수리성명학은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元亨利貞의 四格을 구성한 후에 수의 陰陽五行과 靈動

2)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19집(동남어문학회, 2005. 3), 52쪽.

3) S. 리몬-케넌 저,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서울: 문학과지성사, 1985), 55쪽.

4) 르네 웰렉·오스틴 위렌, 김병철 역, 『문학의 이론』(서울: 을유문화사, 1982), 348쪽.

5) 李潤生, 『正體·表德·美稱—姓名文化概說—』(中國, 華文出版社, 1997), 4~5쪽.

袁 眞, 『姓名學概論』(中國: 西藏人民出版社, 2001), 1쪽.

6) 김우재, 『자해비전 사주와 성명학』(서울: 삼신서적, 1971) 참조.

조봉우, 『비전 성명대전』(서울: 명문당, 1993) 참조.

余雪鴻, 『姓名學秘理』(臺灣: 龍吟文化事業, 1997) 참조.

李潤生, 앞의 책 참조.

袁 眞, 앞의 책 참조.

7) 역상성명학은 역리성명학이라고도 하는데, 역상성명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力으로써 사람의 일생을 판단한다. 그리고 역사성명학은 글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패를 구성하고 그 패의 의미를 원용하여 사람의 일생을 판단한다.

필자는 <장풍운전>의 주인공인 장풍운과 <소대성전>의 주인공인 소대성의 성명을 수리성명학의 방법으로써 각각 분석한 인물의 일생이 작품에서 서술한 인물의 일대기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⁸⁾ 그리고 <장풍운전>의 주인공인 장풍운과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의 성명을 역사성명학의 방법으로써 각각 해석한 일생이 작품에 서술된 인물의 일대기와 일치하는 사실을 밝힌 일도 있다.⁹⁾ 이런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고소설의 작가는 주인공의 성명을 작품의 줄거리와 일치하도록 성명학에 근거하여 작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이 추정 은 성명이 작품의 내용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아울러서 이 방면의 지속적인 연구와 확대는 고소설의 인물, 사건, 그리고 주제의 원천을 밝히는 데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소대성이 주역의 팔괘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이 <소대성전>에 서술되어 있다.

잇췌 소성이 니싱 등을 보니고 탄식왈 “췌인이 깅을 슬어 흐이 장췌 어디로 향햐리요?” 마음이 불안햐여 칙을 노코 보던이 흘런 광풍이 충 틈으로 드리와 췌의 췌 관을 벗겨 공중의 소스다가 방 중의 췌러지니 췌이 그 관을 효화햐고 췌역을 니여 팔괘를 보더니 고이햐 일이 눈 압 푸 뵈이난지라(제13장 전면)

8) 김병권, 『장풍운전 구성의 성명학적 접근』, 『어문교육논집』 제17집(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3), 39~48쪽.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51~71쪽.

9) 김병권, 『장풍운전 구성의 성명학적 접근』, 48~51쪽.

김병권, 『홍길동전 창작의 주역적 원리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제6호(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12), 235~260쪽.

소대성이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이 창 틈으로 들어온 광풍에 공중으로 솟았다가 방바닥으로 떨어진다. 소대성은 관을 태운 후 주역의 팔괘를 보니 괴이한 일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 내용은 소대성이 주역으로써 점을 쳤음을 의미한다. 작품에서 주역점을 서술한 것은 주역의 筮術을 수용한 증거가 되며, 아울러서 <소대성전>을 주역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도 찾아진다.¹⁰⁾

주역의 논리를 적용하여 <소대성전>의 창작 원리를 해석하는 일은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소대성전> 창작의 원천을 주역의 筮術에 근거한 역상성명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밝히려고 한다. 주역은 陰陽과 八卦를 이용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실상을 설명한다. 음양의 부호 체계로 구성한 팔괘는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실천하고 본받아야 할 진리와 도리까지 함축하고 있다.¹¹⁾ 이런 상징 체계를 가진 괘의 의미를 인간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는 사람의 품성과 관련될 것이며,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일은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본받아야 할 진리와 도리는 사람의 교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소대성의 성명을 역상성명학의 방법으로 분석한 내용이 <소대성전>의 인물, 사건, 그리고 주제와 어떤 유기적 관련이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0) 고소철을 주역의 논리로서 연구한 예는 배영희의 『구운몽과 동서철학의 만남-역학을 중심으로-』 상(서울: 민속원, 2001)과 김병권의 「창선감의록에 서술된 점복의 서사문학적 의미」(『국어교과교육연구』 제3호, 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6, 147~170쪽)에서 시도되었다.

11) 엄연석, 「주역에서 상과 의미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25쪽.

II. 蘇大成 성명의 地澤臨卦 上六

역상성명학은 周易占의 한 방법이며, 작명 또는 성명의 해석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역사성명학의 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 또는 일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명을 활용하여 상하 두 小成卦로 이루어진 大成卦를 구성해야 한다. 소성괘는 세 개의 효로 이루어진 팔괘를 가리키고, 대성괘는 두 개의 소성괘를 중첩함으로써 여섯 개의 효로 이루어진 육십사괘를 가리킨다.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卦象을 구성하는 방법은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또는 이론가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장되었으며, 각 방법은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¹²⁾ 필자는 두 가지의 방법을 고소설의 인물에 적용하여 인물의 성격과 일생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 하나는 上名の 획수으로써 上卦를 구하고 下名の 획수으로써 下卦를 구하는 방법인데,¹³⁾ 장풍운의 성명을 분석할 때 적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총획수으로써 상괘를 구하고 상명과 하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합한 수로써 하괘를 구하는데,¹⁴⁾ 홍길동의 성명을 분석할 때 적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홍길동전>에 적용한 방법을 선택한다. 소대성의 한자 표기는 “蘇大成傳 卷之上扁”이라는 간기에서 볼 수 있듯이 蘇大成이다. 姓에 사용한 蘇는 22획, 上名에 사용한 大는 3획, 下名에 사용한 成은 7획이다. 이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모두 합하면 32이며, 32를 8씩 제하면 나머지는 0이다.¹⁵⁾ 나머지가 0일 경우 易數는 8이다. 역수 8에

12) 김병권, 『홍길동전 창작의 주역적 원리 연구』, 238~240쪽.

13) 김우재, 앞의 책, 229~230쪽.

14) 필자가 복사본으로 간직하고 있는 편자 미상의 『성명보전-역상편-』(필사본, 연기 미상)에서는 괘를 구한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5) 역수는 1에서 8까지의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8씩 제한다. 그리고 역수 1은 乾, 2는 兌, 3은 離, 4는 震, 5는 巽, 6은 坎, 7은 艮, 그리고 8은 坤이다.

해당하는 卦名은 坤이며, 卦象은 地이고, 이 부호는 ≡이다. 그리고 名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합한 10을 8씩 제하면 나머지는 2이다. 역수 2에 해당하는 괘명이 兌이며, 역상은 澤이고, 이 부호는 ≡이다. 상괘가 地이고 하괘가 澤인 괘의 괘명은 臨 또는 地澤臨이다. 다음으로 動爻를 잡아 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소대성의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와 명에 사용한 글자의 획수를 합하면 42가 된다. 42를 6씩 제하면 나머지가 0이다.¹⁶⁾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6을 사용한다. 6은 여섯 개의 爻로 구성된 괘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上爻를 가리키며, 지택임괘에서 上爻가 陰이다. 따라서 소대성의 성명으로 구성한 卦는 地澤臨이며, 동효는 上六이다.

각 卦에는 卦名과 卦辭가 있고, 각 효에는 爻辭가 있다. 卦명은 본질적인 의미 상황을 규정하며, 도덕적 함의를 가진 관념으로 이루어진다.¹⁷⁾ 卦사는 한 卦의 전체적인 의미 상황을 설명하며,¹⁸⁾ 卦명의 뜻으로부터 음양의 消長과 剛柔의 덕을 가지고 人事에 견주어 길흉을 서술한 것이다.¹⁹⁾ 그리고 효사는 한 卦의 보편적인 의미 상황 속에서 卦효가 지시하는 특수한 단계의 변화된 의미 상황을 독립적이고 고유한 사태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이것에 길흉의 평가를 행한다.²⁰⁾ 역상성명학은 卦명, 卦사, 그리고 효사를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근거로 활용한다.

지택임괘의 卦사와 상육의 효사는 소대성의 성격 또는 일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된다. 지택임괘 상육의 卦상, 卦사, 그리고 효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¹⁾

16) 대성괘는 여섯 개의 爻로 이루어진다. 각 효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아래서 위를 향하여 순서대로 初爻, 二爻, 三爻, 四爻, 五爻, 그리고 上爻라고 부른다. 그리고 陽爻일 때 숫자 九를 사용하고 陰爻일 때는 숫자 六을 사용하여 양효와 음효를 구분한다.

17) 엄연석, 앞의 논문, 48쪽.

18) 엄연석, 앞의 논문, 43~44쪽.

19)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 상(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1), 8쪽.

20) 엄연석, 앞의 논문, 57쪽.

上六		卦辭：臨은 元亨하고 利貞하니 至于八月하여서는 有凶하리라
六五		• 彖曰 臨은 剛浸而長하며 說而順하고 剛中而應하여 大亨以正하니 天之道也라 至于八月有凶은 消不久也라
九四		• 象曰 澤上有地臨이니 君子以하여 教思無窮하며 容保民이 無疆하나니라
六三		爻辭：上六은 敦臨이니 吉하여 无咎하니라
九二		• 象曰 敦臨之吉은 志在內也라
初九		

Ⅲ. 大道正士의 인품과 인물 형상

역사성명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 상괘의 卦德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패명, 패사, 그리고 효사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먼저 패명의 의미 상황과 도덕적 함의를 통해서 사람의 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괘의 상괘는 地이고 하괘는 澤이다. 卦象을 보면, 위에 있는 地가 아래에 있는 澤에 임하는 모습이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패이다. 卦體를 보면, 剛한 뜻을 가진 두 陽爻가 柔한 뜻을 가진 네 陰爻에 임해 있는 모습이므로 강이 유에 임하는 패이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임함을 취하고 강으로서 유에 임함을 취하는 것은 백성에 임한다는 뜻이다.²²⁾ 그리고 물에 임하는 땅은 물을 무한히 흡수하여 만물을 기른다. 땅이 물을 무한히 흡수하여 만물을 길러내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할 때 도량이 광활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³⁾ 따

21) 성백효 역주, 앞의 책, 459~471쪽.

22) 성백효 역주, 앞의 책, 459쪽.

23) 광활한 도량은 수리성명학으로써 판단했던 풍성한 기량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된다.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55쪽.

라서 지택임괘의 사람은 도량이 광활하며 백성을 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괘의 전체적 의미 상황을 설명하는 괘사를 통해서 사람의 품성을 살펴보겠다. 괘사 가운데 “크게 형통하고 정함이 이롭다(元亨하고 利貞하니)”라는 내용은 『彖傳』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늘의 도(天之道)가 된다. 하늘의 도는 하늘이 행하는 것이므로²⁴⁾ 큰 도이다. 따라서 지택임괘의 사람은 도가 크고 품성이 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택임괘의 변화된 의미 상황을 만드는 상육의 효사를 통해서 사람의 품성을 살펴보겠다. 지택임괘의 상육에 대한 효사는 “임함에 돈독하니 길하여 부끄러움이 없다(敦臨이니 吉하고 无咎하느니라)”이다. 상육은 임괘의 위에 거하고 음이 음의 자리에 있으니 바름을 얻은 효이다. 그리고 上六이 坤의 극이니 순함이 지극한데, 임의 마지막에 거하였으니 임함에 돈독한 것이다.²⁵⁾ 앞에서 지택임괘의 괘상이 백성에 임하는 모습이며, 이는 백성을 위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을 상육의 효사와 관련해서 이해하면 백성에 임함이 돈독하며, 백성에 임함이 돈독하다는 것은 백성을 위함이 돈독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명이 지택임괘로 구성된 소대성의 인품은 도량이 광활하고, 백성을 위함이 돈독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람은 도가 크고 바른 인물로서 大道正士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성명을 통해 살펴본 대도정사의 인품이 <소대성전>에서 서술된 소대성의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대성전>에서 소대성은 도량이 광활한 인물이다. 소대성은 부모의 사후에 가산을 정리하여 노복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떠나며, 노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울고 있던 노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가진 돈을 준다. 이런 소대성의 행위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도 부모를 잃은 사람으

24) 김석진 강해, 『대산주역강해』 상경(서울 : 대유학당, 1994), 248쪽.

25) 성백효 역주, 앞의 책, 470쪽.

로서 同體慈悲의 정신을 실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그런데 서술자는 소대성의 행위에 대해 “도량니 창회를 세이리더라”(제3장 후면~4장 전면)고 논평한다. 그리고 소대성은 자신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던 인물들을 노왕이 된 후에 초대하여 그 죄를 용서하고 환대한다. 서술자는 이런 소대성의 행위에 대해 “원슈 변호여 은인 되고 화 도로여 복이 되야또다”(제43장 전면)라고 평가한다. 소대성의 행위와 서술자의 평들을 통해서 소대성은 도량이 광활한 인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대성은 백성을 위하는 일을 과업으로 삼는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대성이 재산을 노복들에게 맡기며 노인에게 노모의 장례비를 주는데, 이 내용은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을 위하고 돕는 마음을 실천한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한 근원적인 성격은 소대성의 발화에서 드러난다.

장부 세상의 처호야 문무를 겸전호여다가 난세를 당커든 전장의 나아
가 흉적을 쓰러쳐 빅성을 도탄 중의 건지미 장부의 찢 〃 혼 모척이여늘,
엇지 셔척만 디호여 세월을 보니릿가(제8장 전면)

소대성은 文武를 겸비하여 난세를 당했을 때에 전장에 나아가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내는 일이 장부의 떳떳한 도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책만 대하여 세월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소대성의 이야기는 미래에 난세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백성을 난세에서 구해야 한다는 장부로서의 뜻을 분명하게 세웠으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소대성은 난세에 백성을 구하려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대성전>에서 서술하고 있는 소대성은 도량이 광활하여 비천하거

26)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한국문화논총』 제41집(한국문화회, 2005. 12), 176쪽.

나 가난한 백성을 돕고, 난세에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돈독한 인물이 다. 따라서 소대성의 성격은 그의 성명을 주역으로 판단한 대도정사의 인품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대도정사의 인품이 <소대성전>에서 설정한 인물 성격의 원천이 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IV. 利他自利의 행위와 사건 구성

앞에서 지택임괘 상육으로 구성되는 사람은 대도정사로서 도량이 광활하고 백성을 위하는 인품을 지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런 인품을 지닌 사람의 행위에 대해 패사와 효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지택임괘의 패사는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臨은 크게 형통하고 정함이 이로우니, 팔월에 이르면 흉함이 있으리라(臨은 元亨하고 利貞하니 至于 八月하여는 有凶하리라)”이다. 사람의 행위를 임괘와 관련하여 분석하기 위해 패사의 내용을 ‘크게 형통하고 정함이 이롭다’와 ‘팔월에 이르면 흉함이 있으리라’로 구분하여 정함과 흉함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은 크게 형통하고 정함이 이롭다는 내용에 대해 「단전」은 “임은 강이 점점 자라며 기뻐하고 순하며 강이 중에 있고 응하여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하늘의 도이다(臨은 剛浸而長하며 說而順하고 剛中而應하여 大亨以正하니 天之道也라)”라고 설명한다. 강이 점점 자라는 것(剛浸而長)은 지택임괘에서 아래의 陽爻인 初九와 九二가 점차로 자라서 위로 나아가는 궤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궤적으로 보면, 하괘의 兌는 기뻐하는 덕을 의미하고, 상괘의 坤은 유순한 덕을 의미하므로 지택임괘는 기뻐하고 순하다(說而順)고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궤체를 보면, 九二 剛陽은 하괘의 中에 위치하고 六五 柔陰은 상괘의 中을 얻고 있으며, 중을 얻은 九二와 六五는 양과 음으로 서로 應하고 있다(剛中而應).²⁷⁾

27) 성백효 역주, 앞의 책, 461~462쪽.

二갯와 五갯에 위치한 경우를 得中이라고 하며, 득중의 경우엔 대부분 길한 것으로 나타난다.²⁸⁾ 이처럼 지택임괘는 패덕과 패체가 바름으로써 크게 형통하며, 이는 하늘의 도(天之道)라는 것이다. 하늘의 도는 기운의 흐름이라고 한다.²⁹⁾ 따라서 성명이 지택임괘로 구성되는 사람은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바르고 크게 형통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팔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는 패사에 대해 「단전」은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消不久也라)”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양은 군자가 되고 음은 소인이 되니 군자의 도가 자라날 때를 당하여 성인이 경계해서 지극하면 흉하게 되는 이치가 있음을 알아 미리 대비하여 항상 가득하고 지극함에 이르지 않게 한 것이니, 이렇게 하면 흉함이 없다고 설명한다.³⁰⁾ 패사에서 흉함이 있다고 한 것은 지금은 양이 성해 가는 때이지만 다시 음이 성할 때가 돌아온다는 경계를 둔 것이다.³¹⁾ 이 내용을 사람의 일과 관련해 보면, 군자의 도가 성해 가는 때이지만 다시 소인의 도가 성할 때가 돌아온다는 점을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길흉의 의미에 대해 「繫辭傳」에서 “길·흉은 失과 得의 象이다(吉凶者是 失得之象也요)”라고 설명하였듯이,³²⁾ 흉은 잃어버림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역도에 위배하여서 행위를 하면 통할 수 없게 되며, 통할 수 없다는 것은 뜻이 달성되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있게 된다. 흉은 역도에 위배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힘써 피해야 하는 것이다.³³⁾ 그래서 흉은 뜻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다는 뜻으로 이해되며,³⁴⁾ 경계해야 한다는 말은 흉을 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식

28) 김학권, 『주역에서의 화해와 상생』, 한국주역학회 편, 앞의 책, 207쪽.

29) 김석진 강해, 앞의 책, 248쪽.

30) 성백효 역주, 앞의 책, 463쪽.

31) 김석진 강해, 앞의 책, 246쪽.

32)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1), 527쪽.

33) 고회민 저, 정병석 역, 『주역철학의 이해』(서울 : 문예출판사, 1996), 290쪽.

34) 수리성명학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에 소대성은 타향전전, 처자이별, 질병, 그리고 단명의 불행을 겪는 인물로 판단되었는데(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

을 풍부하게 하고 수양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명이 지택임패로 구성되는 사람은 크게 행동할 때에 경계하지 않으면 시련을 겪게 되며,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학식과 수양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上六의 효사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겠다. 지택임패의 상육에 대한 효사는 “임함에 돈독하니 길하여 부끄러움이 없다(敦臨이니 吉하여 无咎하니라)”이다. 음효인 상육이 양효인 初九 및 九二와 비록 正應이 아니나,³⁵⁾ 대체로 음은 양을 구하고 또 지극히 순하기 때문에 뜻이 두 陽을 따름에 있으니, 존귀하면서 비천한 자에게 응하고 높으면서 아래를 따르며 현자를 높이고 선을 취함은 돈후함이 지극한 것이다.³⁶⁾ 존귀하면서 비천한 자에게 응한다는 것은 비천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백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그리고 효사에서 길하다고 했다. 『계사전』에서는 “하늘로부터 도와주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自天祐之하여 吉无不利니라)”³⁷⁾라고 한다. 그리고 길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얻는 것이 있다는 뜻이 되고, 인간이 역도의 법칙에 따라서 행위를 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게 되면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³⁸⁾ 이런 관점으로써 보면, 앞에서 언급한 흥은 하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효사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역도를 추구하여 사회의 명망이 높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³⁹⁾ 따라서 성명이 지택임패 상육으로 구

명학적 연구, 56쪽.), 이 내용은 역상성명학으로써 판단한 내용보다 구체적이다.
35) ‘應’이란 대성패의 상패의 세 효와 하패의 세 효가 서로 짝을 지어 응함을 말한다. 이 관계가 양과 음으로 응하면 正應이라 한다. 그리고 양과 양, 음과 음이 대치된 경우를 無應이라고 한다.<김석진 강해, 『대산주역강해』 상경, 36쪽.> 하패의 초효가 양일 때, 상패의 초효가 음이면 정응이고 양이면 무응이다.

36)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 470쪽.

37)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529쪽.

38) 고희민 저, 정병석 역, 앞의 책, 290쪽.

39) 이 내용은 재물이 생하여 명예와 지위가 높아진다고 수리성명학으로 판단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된다.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성되는 사람은 어려운 백성을 돕고, 하늘의 도움으로써 시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의 명망이 높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소대성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소대성의 행위는 학식과 수양에 힘을 쓰며, 백성의 어려움을 돕고, 시련을 하늘의 도움으로 극복하며, 그리고 크게 형통하여 사회의 높은 명망을 얻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소대성은 남을 이롭게 하고 그 결과로 자신도 이롭게 되는 利他自利를 행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성명으로 판단한 소대성의 利他自利的 행위가 <소대성전>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대성은 학식과 수양에 힘쓴다. 소대성의 뛰어난 학식은 여러 장면에 서술되어 있다. 소대성은 십 세에 이르러 이백과 두보의 문필을 겸하였고 백가의 지식에 통하지 않음이 없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이승상이 나무를 하여 연명하던 소대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킬 때에 소대성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른 서책은 부당하다 하고 병서를 공부하려고 한다. 소대성이 병서를 공부한 것은 난세를 당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소대성은 청룡사에서 노승과 함께 불경을 의논하고 병서 공부에 몰두한다. 소대성이 병서에 몰두한 것은 이승상의 집에서 武를 익히기 위한 병법 공부의 연속이며, 불경 공부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행위라고 보아진다. 이처럼 소대성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와 수양을 계속한다. 이런 과정의 공부를 통해 소대성의 학식은 풍부하게 된다.

소대성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소대성은 부모의 사후에 가산을 정리한 돈을 노복들에게 맡기는데, 이 내용은 비천한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행위이다. 그리고 노모의 장례를 지내지 못해 울던 노인의 사연을 듣고 가진 돈을 노인에게 모두 준다. 소대성은 돈을 갚겠다는 노인의 의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노인에게 준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소대성이 가난한 백성을 돕는 不住相布施의 행위이다.⁴⁰⁾ 그리고 호왕이 명나라를 침략했을 때 소대성은 출전하여 승전한다. 전쟁은 명나라의 왕이 “악가온 장졸이 원혼이 되어서니”(제37장 전면)라고 말했듯이, 수많은 백성들을 원통한 죽음으로 몰아 넣는다. 소대성이 전쟁에 승리한 일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 행위이다. 이처럼 소대성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

소대성은 다양한 고난을 겪는다. 먼저 소대성은 부모의 죽음 이후에 유리 걸식을 한다. 그는 “남의 외양도 쳐주며 담도 싸 계우 연명하야 지너”(제4장 전면)며, 이런 고생에 대해 스스로 “고향을 떠나 추풍 낙엽갓치 단이오며 늙은 은혜 찢치기 불가하와 만산 초목의 싱이을 부쳐 단이”(제5장 전면~제6장 후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소대성은 이승상의 죽음으로 인해 처가의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이승상이 어린 소대성을 양육하고 그의 딸과 정혼시켰지만, 소대성이 결혼하기 전에 죽는다. 이승상의 죽음은 소대성에게 시련의 원인이 된다. 즉 이승상의 가족들은 이승상과 소대성의 언약을 생각하고 소대성을 내치지 못해 자객에게 천금을 주고 비밀리에 소대성을 죽이도록 주문한다. 마지막으로 소대성은 명나라를 침입한 호왕과 전쟁을 해야 하는 시련을 겪는다. 이 전쟁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려는 뜻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지만 소대성에게는 많은 위기와 시련이 따른다. 호왕은 정상적인 전쟁으로는 소대성의 전술과 무력에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소대성을 백운동으로 유인하여 불에 태워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의 실행은 “몸이 날기 업스니 엇지 불을 피하리요”(제32장 전면~후면)라는 서술처럼 소대성에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된다. 이처럼 소대성은 부모의 죽음 때문에 유리 걸식을 하게 되며, 그를 양육한 이승상의 죽음 때문에 처가의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그리고

40)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177쪽.

호왕의 침입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한다. 유리 결식은 가정 차원에서 주어진 고난이고, 처가 가족의 박대와 자객의 침입은 사회 차원에서 주어진 고난이며, 그리고 호왕의 침입은 국가 차원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다. 이러한 시련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 공통점은 모두 소대성의 능력이 성장할 때에 겪게 되는 위기이며, 상대를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시련이다.

소대성은 위에서 제시한 시련을 하늘의 도움으로 극복한다. 먼저 이승상이 걸인 형상이 된 소대성을 구한다. 이승상이 꿈을 꾸고 청룡이 누웠던 자리를 찾아가며, 그 꿈은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소대성을 만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다음으로 소대성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객을 살해하고 이승상의 집에서 나와 방황하고 있을 때, 한 동자는 소대성이 청룡사에 가도록 유도하며, 청룡사의 노승은 소대성을 양육하면서 병법과 불경을 공부하도록 돕는다. 그 동자는 “서히 광덕왕의 제즈라 왕명을 받드와”(제17장 후면)에서 보는 것처럼 초월적 존재이다. 청룡사의 노승은 소대성의 아버지가 “부체 중인 줄 알고 계호의 나려 공중을 향하여 무슈히 사례하고”(제2장 전면), 소대성이 “부체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스레하고”(제23장 전면)와 같은 내용으로써 알 수 있듯이, 불교적 신통력을 지닌 초월적 존재이다.

그리고 소대성은 명나라가 호왕의 침입을 받고 위태롭게 되었음을 알고 출전하려 하지만 전쟁 기계가 없어 걱정한다. 이때 노승은 “장이 십척니요 은〳〵 칠성이 박켜거늘 별을 응호야 칠성검이라”(제22장 후면~제23장 전면)고 이름한 검을 준다. 이승상의 영혼은 “입으면 너게 유익하고 남으게 희로오며 몸의 창검이 능히 범치 못하느”(제24장 전면) 보신갑과 투구를 준다. 그리고 별유천지 비인간의 세계에서 만난 한 산신이 “청천을 바라며 구름을 헤치고져 하느듯 기상이 혼연”(제25장 후면)한 용청총마를 준다. 소대성에게 전쟁 기계를 준 노승, 이승상의 영혼, 그리고 산신은 모두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소대성이 호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백운동에서 불에 타 죽게 되었을 위기에 “천상 남천문 밧그 잇는 화덕진군”(제32장 후면)이 석가여래의 요청으로 불을 끄고 소대성을 구한다. 화덕진인은 “천상 남천문 밧그 잇”(제32장 후면)는 천상의 초월적 존재이다.

소대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돕는 인물은 위에서 보았듯이 이승상을 제외하면 모두 초월적 존재이다. 초월적 존재가 소대성을 돕는 것은 천상계가 자아의 탁월한 능력을 보장해주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자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⁴¹⁾ 그리고 소대성이 불교의 가르침인 동체자비의 정신을 실천한 데에 대한 無量福德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⁴²⁾ 초월적 존재의 도움은 천상계의 질서가 지상계에 개입한 것이라고 보든, 동체자비 정신의 실천에 대한 무량복덕이라고 보든, 하늘의 도움이라고 이해된다. 소대성은 노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노인에게 돈을 주면서 “하날이 지시ᄃᆞ미라”(제4장 전면)고 말한다. 이 말은 소대성이 하늘의 뜻에 따른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소대성이 결인의 형상이 되었을 때 서술자는 “하날이 엇지 무정ᄃᆞ리요”(제4장 전면)라고 하여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 소대성이 불에 타지 않고 살아 왔을 때에 왕은 “ᄃᆞᆫ리 감동ᄃᆞ스 잔명을 보전ᄃᆞ시도다”(제33장 후면)라고 이야기하여 하늘의 도움을 인정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소대성이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그 고난을 극복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대성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풍속을 교화하여 사회의 환영을 받는다. 소대성이 호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왕이 소대성에게 노왕을 봉하고 해동 십만 호를 준다. 그리고 소대성이 노왕에 즉위하여 “삼삭만의 왕화 일국의 가득ᄃᆞ”(제37장 후면)였으며, 이에 대해 서술자는 “노국이 티평ᄃᆞ야 도불십유ᄃᆞ고 산무도적ᄃᆞ며 강구연월의 동노와 함포

4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서울: 지식산업사, 1977), 314쪽.

42)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179쪽.

고복의 격양가를 일습는지라”(제43장 전면)라고 평한다. 이 내용은 소대성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의 환영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대성이 백성의 환영을 받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도 이롭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대성은 끊임없는 병법 공부와 불교의 수행에 정진하며,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고, 전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 소대성은 이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위기와 시련을 하늘의 도움으로써 극복한다. 그리고 노왕이 된 후에는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처럼 소대성은 남을 이롭게 해주고 그 결과 자신도 이롭게 된다. 남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 것은 相生을 추구한 利他自利의 행위이다. 따라서 소대성의 성명으로 판단한 이타자리의 행위가 <소대성전>에서 전개된 사건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이타자리의 행위가 <소대성전>에서 서술한 사건의 원천이 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V. 敎思保民의 교화와 주제 형성

주역은 자연과 인간사회에서의 변화와 그 법칙에 대한 기술과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인간의 실천적인 행위 준칙을 제시해 준다.⁴³⁾ 지택임괘에서 제시한 인간의 실천적 행위 준칙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소대성의 성격과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괘사는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실천하고 본받아야 할 진리와 도리까지 함축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주역의 筮術은

43) 엄연석, 앞의 논문, 47쪽.

44) 정병석, 『주역의 觀-세계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점으로서의 觀-』, 한국주역학회 편, 앞의 책, 25쪽.

외견상으로는 길흉을 점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화의 방식이다.⁴⁵⁾ 사람이 실천하고 본받아야 할 진리와 도리에 대한 교화의 내용은 주로 『象傳』에 함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상전』의 내용은 “君子以”를 기준으로 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은 자연 사물의 상태를 말하며, 이는 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뒷부분에서는 인간이 패상을 통하여 그곳에 숨어 있는 人道의 의미를 찾아내어 자신 속에서 그것을 현실화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⁴⁶⁾ 즉 천도에 따라서 인간이 실천하고 본받아야 할 내용인 것이다.

지택임괘에 대한 『상전』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못 위에 땅이 있음이 임이니, 군자가 보고서 가르치려는 생각이 다함이 없으며 백성을 용납하여 보존함이 끝이 없다(澤上有地臨이니 君子以하여 教思無窮하며 容保民이 無疆하나니라)”이다.

‘땅이 못 위에 있다(澤上有地)’고 한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백성에 임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가르치려는 생각이 다함이 없다(教思無窮)’에 대해서는 군자가 친히 임하는 상을 보면 가르치려는 생각이 무궁하게 되니 백성에게 친히 임함은 교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백성을 용납하여 보존함이 끝이 없다(容保民無疆)’에 대해서는 숨容하는 상을 보면 백성을 용납하여 보존하려는 마음이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⁴⁷⁾ 이 내용을 종합하면, 군자는 물이 땅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백성을 가르치는 생각을 끝없이 두어야 하며, 땅이 물을 한없이 받아들이듯이 백성을 용납하여 보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택임괘는 군자가 지택임괘의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백성을 포용하며 보호해야 하는 것을 본받고 실천하도록 가르치며, 이런 가르침은 지택임괘가 제시한 교화의 내용이라고 보아진다.

45) 고회민 저, 정병석 역, 앞의 책, 91쪽.

46) 정병석, 앞의 논문, 29쪽.

47)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 463~464쪽.

성명이 지택임과 상육으로 구성되는 인물의 성격과 행위의 준칙에 대해서 궤사의 「상전」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 인물은 천도에 따라서 가르침을 생각하고, 백성을 포용하며 보호해야 하는 일을 본받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소대성은 천도에 따라서 敎思保民의 교화를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 인물이라고 판단된다.

성명으로 판단한 소대성의 교사보민은 <소대성전>에서 서술되고 있는 소대성의 행위에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가산을 정리하여 노복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떠난 일은 비천한 백성을 이롭게 한 행위이다. 노모의 장례를 지내지 못해 울고 있던 노인에게 가진 돈을 모두 준 일은 가난한 백성을 돕는 행위이다. 난세에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내려는 뜻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 일은 백성을 보호한 행위이다. 그리고 소대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을 용서한 일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가르친 행위이다. 왕이 소대성에게 전쟁에 승리한 공로를 치하하여 천하를 반분해 주려고 할 때에 소대성이 왕의 뜻을 거절한 일은 겸손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행위이다. 이처럼 <소대성전>에는 소대성이 교사보민을 실천한 인물로 묘사 또는 서술되어 있다.

소대성은 백성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다양한 위기와 시련을 겪는다. 소대성이 이런 위기와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늘이 소대성을 돕는다. 그리고 소대성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소대성전>은 소대성이 조종을 빛내는 입신영달을 영웅의 일생에 따라서 서술한 작품이지만, 그 바탕에는 백성을 이롭게 하고 가르치는 교사보민의 교화가 작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소대성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불교적 수행을 한 인물인 관점에서 보면, 교사보민의 교화는 불교사상의 위인연결과 같은 맥락이다.⁴⁸⁾ 이런 내용이 지택임과 상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화이며, 이 교화는 소대성의 성격과 행위에 작용한

48)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183쪽.

실천적 행위 준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대성전>의 주제는 군자가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사보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대성전> 주제는 군자가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사보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 주제는 지택임괘가 제시한 교사보민의 실천적 행위 준칙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런 교사보민의 실천적 행위 준칙은 <소대성전> 주제 형성의 원천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VI. 결론

소대성의 성명은 조종을 빗낼 것이라는 기대에서 작명되었다. 이 글은 소대성의 작명이 의도적이란 전제 아래 <소대성전>에서 서술한 인물, 사건, 그리고 주제의 원천을 역상성명학의 방법에 근거하여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소대성의 성명으로써 괘를 구성하고, 다음으로 그 괘의 괘명, 괘사, 그리고 효사의 내용을 통하여 소대성의 성격과 행위, 그리고 실천적 행위 준칙을 차례대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짓고자 한다.

첫째, 소대성 성명에 사용된 한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구성한 괘는 상괘가 지괘이고 하괘가 태괘인 地澤臨卦이며, 동효는 上六이다.

둘째, 성명이 지택임괘 상육으로 구성된 사람은 백성을 위함이 돈독하며, 도량이 광활하다. 이런 사람은 도가 크고 바른 인물로서 大道正士라고 하였다. <소대성전>에서 서술한 소대성은 도량이 광활하여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을 도우며, 백성을 난세에 구하려는 마음이 돈독한 인물이다. 이런 소대성의 성격은 그의 성명을 주역으로 판단한 대도정사의 인품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대도정사의 인품은 소대성 성격 창조의

원천이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성명이 지택임괘 상육으로 구성되는 사람의 행위는 학식과 수양에 힘을 쓰며, 백성의 어려움을 돕고, 하늘의 도움으로써 시련을 극복하며, 크게 형통하여 사회의 높은 명망을 얻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고 그 결과로 자신도 이롭게 되는 利他自利를 행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소대성전>에 서술된 소대성은 학문과 수행에 정진하며,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고, 전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위기와 시련을 하늘의 도움으로써 극복하며, 노나라의 왕이 된 후에는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런 소대성의 행위는 그의 성명을 주역으로 판단한 이타자리의 실천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타자리의 행위가 <소대성전>에 서술된 사건의 원천이 된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지택임괘 상육으로 구성되는 사람은 백성을 가르치고, 포용하며 보호해야 하는 일을 본받고 실천해야 한다. <소대성전>은 소대성의 입신영달을 서술한 작품이지만, 이면에는 敎思保民의 敎化가 작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소대성전>의 주제는 군자가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사보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주제는 성명으로 판단한 교사보민의 교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소대성전>의 인물, 사건, 그리고 주제가 역사성명학의 방법에 근거하여 작명한 소대성의 성명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성명으로써 판단한 내용이 작품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추정한 내용은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관계를 성명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인물의 작명과 작품 구상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보다 심화될 것이다.

주제어 : 소대성전, 주역, 역사성명학, 地澤臨卦, 大道正士의 인품, 利他自利의 행위, 敎思保民의 교화

참고문헌

- 권우행 소장, <소대성전>, 완판 43장본.
- 고희민 저, 정병석 역, 『주역철학의 이해』, 서울 : 문예출판사, 1996.
- 김병권, 「장풍운전 구성의 성명학적 접근」, 『어문교육논집』 제17집,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3, 33~52쪽.
-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작명과 그 서술의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제18집,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12, 1~22쪽.
- 김병권, 「창선감의록에 서술된 점복의 서사문학적 의의」,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6, 147~170쪽.
- 김병권, 「홍길동전 창작의 주역적 원리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제6호, 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12, 235~260쪽.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19집, 동남어문학회, 2005. 3, 51~71쪽.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1집, 한국문학회, 2005. 12, 167~187쪽.
- 김석진 강해, 『대산주역강해』 상·하경, 서울 : 대유학당, 1994.
- 김우재, 『자해비전 사주와 성명학』, 서울 : 삼신서적, 1971.
- 김학권, 「주역에서의 화해와 상생」,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4, 189~211쪽.
- 르네 웰렉·오스틴 위렌, 김병철 역, 『문학의 이론』, 서울 : 을유문화사, 1982.
- 배영희, 「구운몽과 동서철학의 만남-역학을 중심으로-」 상, 서울 : 민속원, 2001.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하, 전통문화연구회, 2001.
- 엄연석, 「주역에서 상과 의미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4, 39~81

쪽.

S. 리몬-케넌 저,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5.

정병석, 『주역의 觀-세계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점으로서의 觀-』,
한국주역학회 편, 『주역의 근본 원리』,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4, 17~38쪽.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서울 : 지식산업사, 1997.

조봉우, 『비전 성명대전』, 서울 : 명문당, 1993.

편자 미상, 『성명보전-역상편-』, 필사본, 연기 미상(지금은 없어진 고서
점의 주인이 소장하고 있던 복사 자료였는데, 필자는 그 자료를
다시 복사해서 간직하고 있다.).

余雪鴻, 『姓名學秘理』, 臺灣 : 龍吟文化事業, 1997.

袁 眞, 『姓名學概論』, 中國 : 西藏人民出版社, 2001.

李潤生, 『正體・表德・美稱-姓名文化概說-』, 中國 : 華文出版社, 1997.

<Abstract>

The Study of the Yeoksang Onomastics in the *Tale of Soh Dae-seong* as a Source of Creation

Kim, Byeong-Kweon

The name of Soh Dae-seong(蘇大成) was created in expectation of bringing glory to the royal ancestors. On the premise that Soh Dae-seong was named on purpose, this paper takes a look at the *Tale of Soh Dae-seong*(蘇大成傳)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eoksang(易象) Onomastics based on the Book of Changes to shed light on the source of creation.

First, the gwae(卦) produced by the number of strokes in the name Soh Dae-seong in a Chinese character represents “ji-taek-im-gwae(地澤臨卦)” where the upper gwae is “ji”, the earth, and the lower gwae is “taek”, the pond, and the donghyo(動爻) is “sang-yuk(上六).”

Second, a person whose name is composed of “ji-taek-im-gwae” and “sang-yuk” is destined to be generous in serving the public and broad-minded. This type of person is called “dae-do-jeong-sa(大道正士),” which means a man with generosity and honesty. Soh Dae-seong described in the *Tale of Soh Dae-seong* is very generous in helping poor people and dedicates himself to saving the people from the troubled times. His personality is organically related to the character of “dae-do-jeong-sa,” the interpretation of his name based on the Book of Changes, so the “dae-do-jeong-sa” personality can be

seen as the source for creating the character of Soh Dae-seong.

Third, a man whose name is composed of “ji-taek-im-gwae” and “sang-yuk” tends to study hard and cultivate his mind, lend a helping hand to people in need, overcome difficulties with the help from the heaven and eventually succeed and earn a high reputation. This man practices the “i-ta-ja-ri(利他自利),” which means being altruistic and subsequently benefiting himself. Likewise, Soh Dae-seong in the 『Tale of Soh Dae-seong』 is immersed in studying and practicing, helps humble and poor people and saves the people from the distress of the war. In this process, he overcomes a series of crises and ordeals thanks to the help from the heaven and after coming to the throne of the Noh Kingdom, he governs well and the people respects him. These behaviors are organically connected to his nam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i-ta-ja-ri” based on the Book of Changes, so the “i-ta-ja-ri” behaviors are the source of events described in the *Tale of Soh Dae-seong*.

Fourth, a person with the gwae of “ji-taek-im-gwae” and “sang-yuk” is supposed to teach, embrace and protect the people. 『Tale of Soh Dae-seong』 is about the success and advancement of Soh Dae-seong, but behind the story is the “gyo-sa-bo-min(教思保民)” enlightenment of providing knowledge and protection to the people. Therefore, the main subject of the *Tale of Soh Dae-seong* is that a man of virtue should practice the “gyo-sa-bo-min” by educating and protecting the people and this subject stems from the “gyo-sa-bo-min” enlightenment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his name.

This study shows that characters, events and main subject of the *Tale of Soh Dae-seong* are organical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his name based on the Yeoksang Onomastic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name Soh Dae-seong based on the Onomastics is presumed to be the source of creation in the *Tale of Soh Dae-seong*, which chronicles the life of Soh Dae-seong.

Key Words : *The Tale of Soh Dae-seong*, source of creation, the Book of Changes, the Yeoksang Onomastics, “ji-taek-im-gwae”, personality of “dae-do-jeong-sa”, behaviors of “i-ta-ja-ri”, enlightenment of “gyo-sa-bo-min”